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 연구

- 수도권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이 현 애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 연구

- 수도권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소 경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이 현 애

이현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광 덕 주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그간 중등교육 맥락에서 교과는 곧 학문과 동의어로 이해되거나 혹은 학문을 단순화한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해 온 바, 교과의 명칭과 내용은 학문에 의존하여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내용 지식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하고 교과가 학습자 및 사회와 무관한 탈맥락적 성격을 띠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념적 인식의 극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부터 일반고등학교를 포함한 단위학교에서 학문적 필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의해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왔다.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교과의 의미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단위학교들이 실제로 이러한 과목 신설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개설된 학교 신설 과목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학교 신설 과목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 시점의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특성의 것들이 교과로서 수용되고 또 배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학교 신설 과목이 개설된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총 242개의 학교를 표집하여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안 및 교과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대한 문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대상교 중 일부의 학교를 선정하여 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은 어떠한가?

1-1. 학교 신설 과목은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가?

- 1-2. 학교 신설 과목은 어떠한 유형으로 개설되어 있는가?
2.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통해 볼 때,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문제 1-1에 대한 결과로 학교 신설 과목의 수 측면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 학교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유형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학교의 비율이 일반고등학교가 42.0%, 자율고등학교가 72.2%로, 자율고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자율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다수의 과목을 신설한 자율형사립고 1개교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 신설 과목의 수를 살펴본 결과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공립학교가 40.1%, 사립학교가 51.8%로, 공립학교에서의 개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5과목 이상을 신설한 학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학교는 1.9%, 사립학교는 8.2%로 사립학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학교규모별로 개설된 학교 신설 과목의 수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학교의 경우가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이 37.5%로 가장 낮았으며,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3과목 이상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2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을 분류체계와 과목명상의 특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서분석 대상교들은 1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교육과정에서의 교과영역 및 교과(군) 틀에 따라 학교 신설 과목들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교과(군)에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총 204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교양 교과(군)의 경우에도 총 78개교가 신설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타의 교과(군)들의 수치를 크게 웃돈다. 이어서 각 교과 영역 및 교과(군)별로 과목명을 살펴보았을 때, 1) 심화된 성격의 과목들, 예

컨대 학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 영역(미적분학, 통계학)이나 ‘심화’라는 이름이 과목명의 전면에서 드러난 과목들(예: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 ‘심화통계학’ 등)이나 ‘○○과제연구’나 ‘○○연구방법론’과 같이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한 심화 과목들(예: 물리과제연구, 국어연구방법론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2) 과목명에 타 교과가 포함된 과목들(예: ‘경제기초수학’, ‘공업수학’ 등) 및 3) 과목명상 전통적인 교과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 과목들(‘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등) 역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개설 학교 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특정 교과의 보충 학습을 위한 성격의 과목인 수학연습1, 수학연습2,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과목이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을 크게 전통적인 기반 학문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학교 신설 과목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째는 전통적인 기반 학문으로부터 탈주하여 생성되었다 볼 수 있는 과목들로서, ‘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생활과 창의성’, ‘생활과 인성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보다 실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신설 과목들은 전통적인 기반 학문과의 연속성 내지는 연관성을 유지한 채 변이를 보인 과목들인데 그러한 변이의 양상은 다시금 1) 분화, 2) 결합, 3) 변형의 세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분화의 특성을 보인 신설 과목들의 경우 다시금 두 가지 양태로 나뉠 수 있었는데, 하나는 학문의 내용체계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서, 예컨대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과 같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학문의 탐구 방법에 좀 더 방점을 두는 형태로서, ‘국어연구방법론’, ‘화학과제연구’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둘째로, 상이한 분과 학문들을 결합함으로써 변이를 나타낸 신설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공업수학’, ‘경영수학’, ‘역사로 보는 과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여전히 단일한 분과 학문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학습자 혹은 사회를 고려하여 변형한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미디어와 사회’, ‘발명과 문제해결’ 등이 속한다. 그런가하면, ‘변이를 가장한,’ 즉 과목명상으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

실 그 내용에 있어 기존의 특정 교과를 반복 또는 보충하기 위한 신설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수학연습1·2’ 및 ‘인문·자연통합수학’, ‘물리특강1’과 같은 과목이 포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 신설 과목의 사례들은 그간 중등교육 맥락에서 교과와 관련하여 잔존해온 통념, 즉 교과는 곧 전통적으로 그것의 기반이 되어 온 분과 학문에 의존하여 그 명칭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해 학문과 무관하게 ‘생성’하는 형태로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주었다. 또한, 기존의 학문에 대한 변이를 보인 신설 과목들 중에서도 학문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이한 학문들을 결합하거나 혹은 단일한 분과 학문에 기반하되 이를 학습자와 사회를 고려하여 변형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등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문과의 관계에 있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실질적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는 전술한 교과의 통념적 의미의 변화 가능성을 일면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연습1·2’ 및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과 같이 특정 교과의 연습이나 복습을 위한 것 으로서 표면상으로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과목의 개설 비율이 여타의 신설 과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바, 결국 교과에 대한 통념의 변화 및 과목 신설권의 유의미한 활용을 통해 교과의 유의미한 생성 또는 변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교과를 둘러싼 여타의 맥락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신설 과목을 양적, 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것의 전반적인 개설 현황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설 과목들이 갖는 특성을 기반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드러내고 분류하였다. 둘째로,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새로이 ‘교과’가 된 학교 신설 과목들에 관해 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과와 관련한 기존의 통념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통념들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실증하였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 방법 측면에서 문서 분석 대상교 중 일부의 사례,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고등학교만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서 분석과 면담의 대상을 일치시키거나 혹은 실제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고 풍부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서분석의 범위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교 신설 과목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교과, 학교교과, 학문과 교과, 학교 신설 과목,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학 번 : 2014-20848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가.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6
나. 학교 신설 과목	7
II. 이론적 배경	8
1. 교과의 정의 및 특성	8
가. 교과의 정의	8
나. 교과의 특성: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0
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과목 변천과정 ..	16
3. 우리나라 고등학교 단위학교의 과목신설권 발달과정	20
III. 연구 방법	23
1. 문서 분석	23
가. 분석 대상교 선정	24
나. 분석 자료	27
다. 분석 절차	28
2. 면담	30
가. 연구 참여자 선정	30
나. 자료 수집	34
다. 자료의 분석	34

IV.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	36
1. 학교 신설 과목의 수	36
2.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	39
가. 분류체계	39
나. 과목명	40
(1) 기초 교과 영역	40
(2) 탐구 교과 영역	43
(3) 체육·예술 교과 영역	46
(4) 생활·교양 교과 영역	46
(5) 보통교과 이외의 영역	48
V.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	49
1. 기반 학문으로부터의 탈주	49
2. 기반 학문의 ‘변이’와 ‘가장된 변이’	52
VI. 요약 및 결론	58
1. 요약 및 논의	58
2.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8

표 목 차

<표 II-1> 제6차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 (군) 과목 변천과정	16
<표 II-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고등학교 단위학교 과목 신설권의 발달과정(제6차 ~ 2015 개정 교육과정) ·	20
<표 III-1> 문서 분석 대상교 선정 결과	27
<표 III-2> 연구 참여자 명단	33
<표 IV-1>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 개설 현황(학교유형별)	37
<표 IV-2>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 개설 현황(설립유형별)	37
<표 IV-3>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 개설 현황(학교규모별)	38
<표 IV-4> 학교 신설 과목의 분류체계별 개설 학교 수	39
<표 IV-5>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 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국어 교과(군)	41
<표 IV-6>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 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수학 교과(군)	41
<표 IV-7>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 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영어 교과(군)	42
<표 IV-8>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 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사회 교과(군)	43

<표 IV-9>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과학 교과(군)	45
<표 IV-10>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교양 교과(군)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답은 ‘교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과란 무엇을 뜻하는가? 통념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상호 구분되어 온 특정한 지식의 묶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들은 대체적으로 그간 우리의 학교교육 관행 속에서 학문의 내용과 구조에 의존하여 선정·조직되어야 한다고 널리 인식되어 왔다(강현석, 2006; 이홍우, 1998; 홍후조, 2009; 소경희, 2010에서 재인용). 결국 이와 같은 인식의 기저에는 ‘교과는 곧 전통적으로 그것의 모태가 되어온 기반 학문’ 내지는 ‘그것에 적절히 “물탄(watered down) 버전(Stengel, 1997: 589)”이다’라는 통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념은 일종의 내재화된 제도처럼 우리를 지배해 왔다(소경희, 2010: 108).

그러나, 이러한 “교과는 학문 혹은 학문의 단순화(이혁규, 2012: 21)”라는 식의 통념적 인식은 실제 학교교육 맥락에서 교과를 단지 학문의 성공적인 전수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학문이나 지식 체계에 선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정작 특정한 학습 내용이 과연 학습자에게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방기하도록 한다(이혁규, 2012). 즉, 특정한 내용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밀쳐둔 채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됨으로써 실제 교과의 수업이 전달 내지는 습득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이혁규, 2012). 이렇듯 학교맥락에 놓여 있는 학습자나 학습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무관한 탈맥락적인 교과는 학습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주기 어렵다

(소경희, 2010).

실제로, 특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사는 교과를 곧 학문 혹은 그것을 단순화한 것이라 간주하는 완강한 통념적 인식에 대한 숭한 비판과 도전으로 점철되어 왔다(Kliebard, 2004). 회람 시대에 그 뿌리를 둔 중세 ‘7자유학과’로부터 출발한 학문적 전통의 교과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교과’를 거쳐 현재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자리잡았다(소경희, 2017; Beckner & Cornett, 1972). 이후 19세기 후반 중등교육의 확대와 함께 진로나 흥미 등이 다양한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으로 유입되고 사회적 변화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교과들의 적합성에 대한 많은 비판과 대안이 제기되었다(Kliebard,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교과(basics)’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는 명칭에 있어서의 변화를 겪었을 뿐 여전히 잔존해 있다(소경희, 2017; Kliebard, 2004; Burns, 198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해 왔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성이 점차적으로 커진 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국가교육과정상의 선택 과목 수를 종전의 약 두 배 가량 늘려 다양한 교과목들을 제시하였다(소경희, 2017). 이와 더불어,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까지도 단위학교에서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나,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교육부, 1992a: 89)”고 명시하였으며 일반 고등학교를 포함한 단위학교에서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선택’ 교과 중 ‘과정별 선택과목’ 영역에 한해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교육부, 1992b). 이후 이러한 권한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의 모든 교과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7a), 최

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교육부, 2015a).

이렇듯 단위학교 수준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결국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들에게 교과에 대한 통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한다. 즉,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과의 명칭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새로운 ‘교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통념적 의미에서의 교과와는 달리 단위학교로 하여금 ‘무엇이 교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신설 과목의 사례들은 현재 단위학교 내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 = 기반 학문’ 내지는 ‘교과 = 기반 학문의 단순화된 버전’과 같은 도식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 그것의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목 신설권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수준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한 사례가 이미경 외(2013), 민용성 외(2011), 김영일(2008)의 연구에 의해 일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학교 신설 과목 그 자체 보다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이것을 학교 현장에 잘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또한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함으로써 학교 신설 과목의 현황과 특성을 질적으로 탐구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다. 해외의 경우, 중등교육 단계에서 전통적 교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저성취 학생들을 위해 단위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안적 교과목에 초점을 두어 이것의 질적 특성을 밝힌 연구물이 존재하나(예: Burgess, 1984),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 지형을 살펴보면 단위학교 보다는 국가교육과정 개발 시 신설되는 교과목들의 특성에 주목한다거나(예: 이상은, 2013a; 이상은, 2013b; 조상연, 2015; 심승희·김현주, 2016; 이동욱, 2013), 혹은 영재학교나 특목고 또는 대안학교와 같이 특수한 유형의 학교를 위한 특정 과목(김주아·김영민·이미경, 2014; 이경진·최나영, 2014; 김영화, 2015)에 주목하는 등 연구의 초점이 다소 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 과목이 실제 단위학교 수준에서 개

설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다. 즉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 이를테면 학교 신설 과목이 얼마나 개설되어 있고, 어떠한 유형으로 개설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학교 신설 과목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으로서 단위학교 수준에서 개발 및 설정한 것이라 할 때(김영일 외, 2008), 이것의 개설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과목의 어떠한 특성들이 새로이 수용 혹은 배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서 서두에서 논한 교과목의 통념적 의미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1.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은 어떠한가?

1-1. 학교 신설 과목은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가?

1-2. 학교 신설 과목은 어떠한 유형으로 개설되어 있는가?

2.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통해 볼 때,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가.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현재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2013년 12월 18일 고시)에서는 교과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에서 더 많은 이수 단위가 배당된 것은 보통 교과이다. 보통 교과는 다시 기초와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초 교과 영역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이, 탐구 영역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군)이, 체육·예술 교과 영역에는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이,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는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의 8개 교과(군)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교과(군)에는 과목들이 세 수준, 즉 기본, 일반, 심화로 나누어 제시된다. 예컨대, 기초 교과 영역의 수학 교과(군)의 경우 기본 과목으로 ‘기초 수학’이, 일반 과목으로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가, 심화 과목으로는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3). 이를 통해 볼 때, 국가교육과정상의 분류체계상 분화의 정도는 교과 영역 < 교과(군) < 과목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과(군)이나 과목의 동의어로 “교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과(군)과 과목을 총칭하여 “교과” 혹은 “교과목”이라 부르는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면담 자료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발화한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나. 학교 신설 과목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단위학교에서 시·도 수준의 지침 내지는 지원에 따라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교육부, 1992b: 9; 교육부, 1997a: 16; 교육인적자원부, 2007a: 13)” 혹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교육과학기술부, 2009: 21; 교육부, 2013a: 23)” 내지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교육부, 2015a: 38)”을 “신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설”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여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일 외, 2008). 각 시·도의 교육과정 내지는 교육과정 지침을 살펴보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경기도교육청, 2016a;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 그러나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에 편성된 교과목과 2011년 이후 경기도교육청 신설 승인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6b: 13)”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학교는 직접 시·도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타 학교에서 기 승인을 받은 신설 과목들 중 원하는 과목을 편성하는 것 역시 가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 신설 과목”이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과목으로서 단위학교 수준에서 각 시·도의 지침을 따라 새로이 개발하여 직접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과목 혹은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타교에서 기 승인 받은 후 편성되는 과목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과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과에 어떠한 특성들이 배제 혹은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교과의 개념을 살펴본 뒤,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과의 특성에 대하여 논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상에 고등학교급에 다양한 교과목을 신설해 온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교과목들 외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단위학교에 부여함으로써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맥락에서 단위학교에 과목 신설권을 부여하게 된 배경과 과목 신설의 방안을 포함하여 국가 및 시·도 수준에서 제시된 과목 신설권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1. 교과의 정의 및 특성

가. 교과의 정의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교과(subject matter)’를 교육내용을 학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으로 국어, 수학, 과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많은 학자들은 교과를 상이하게 개념화해 왔다. 이러한 교과의 정의와 관련한 논의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교과는 이러저러 “해야한다”는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당위적 내지는 규범적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는 실제로 이러저러 “하다”는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생성적 정의이다¹⁾.

1) 이와 같은 구분은 이상은(2013a)의 논의에서 빌어온 것이다. 이상은(2013a)은 교과의 속성을 ‘당위적인 것’과 ‘생성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당위적인 것’이라 함은

우선 당위적 내지는 규범적 속성을 띠는 교과 정의에는 과거 교과를 곧 인류의 지적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던 보수적 입장에서의 논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과란 곧 학문의 반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학문으로부터 그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응되는 학문을 반드시 갖는다(Schiro, 2013: 23). 지식의 형식으로서의 교과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였던 Hirst & Peters(1970; 이상은, 2013a에서 재인용)의 논의 및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이론적 교과의 가치를 확립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White(1973)의 논의가 이와 맥을 함께 한다.

이렇듯 교과를 그것에 ‘마땅히 담겨야 할’ 내용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변화 내지는 생성되는 속성 그 자체에 주목하거나 혹은 이를 탈이데올로기적으로 정의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교과를 논한 Young(1971; 진영은·조인진, 2002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교과 역시도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즉, 교과에 담기는 지식이라는 것 역시 지식 그 자체의 절대적 논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식을 구조화하고 선정하며 가치를 매기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교과라는 것이다(진영은·조인진, 2002). 또한 Goodson(1983; 진영은·조인진, 2002에서 재인용) 역시 교과란 단일한 실체(monolithic entities)가 아니라 하위 집단과 전통의 융합체로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국내의 논의에서도 과거에 규범적인 관점에서 교과를 정의해 온 흐름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교과를 곧 학문이라 여기고 이는 곧 각 학문이 나타내는 ‘현상을 보는 눈’ 또는 ‘기본적 아이디어’와 동의어로 보는 이흥우(2010: 54)의 논의와, 교과를 인류가 세계에 대하여 품었던 경험을 담고 있는 추상 혹은 양상으로 이해한 김승호(2009)의 논의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상은, 2013a: 38에서 재인용). 한편, 최근에는 이와 같은 규범

‘교과란 이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생성적인 것’이라 함은 ‘교과란 실제로 이러하다’는 순간성, 일시성, 즉흥성, 우연성의 의미를 지닌 속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4).

적 관점에서 교과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생성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교과를 진화하는 ‘유기체’로 정의하는 박인기(2009)의 논의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립적인 조각(segment) 내지는 단위(unit)로 바라보는 소경희(2017)의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박인기(2009: 322)의 경우 교과를 하나의 “유기체적 현상”으로 보고 자신을 둘러싼 각양의 생태학적 여건과 더불어 동화와 조절을 부단히 해 나가는 주체로 정의한다. 즉, 교과를 특정한 정태적인 학문내용의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동성이 강조되는 바, 교과가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과 더불어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박인기(2009)의 교과 정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소경희(2017) 역시 교과라는 용어에 그간 덧씌워져 온 이러저러한 이데올로기적 색깔을 지우고 중립적인 용어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즉, 세상의 무수한 지식 내지는 경험 등은 학습을 위해 어떻게든 쪼개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과란 이들을 쪼개어 비교적 분명한 학습 분야로 조직하는 틀 내지는 방식인 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것의 특정한 내용적, 질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는 교과에 어떤 의미든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교과의 특성: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교과란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중립적인 틀이자 단위로서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과는 곧 해당 학문이다’라는 통념이 완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교과의 명칭이나 내용 역시 학문에 의존하여 구성되어 왔다(소경희, 2017; 소경희, 2010). 여기서 ‘학문’이라 함은 교과의 모태가 되는 ‘분과학문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의 변화하는 역동적인 학문의 경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성을 공고히 유지해 오고 있는 근대적 학문 분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소

경희, 2006; Rogers, 1997; 이상은, 2013a: 213에서 재인용).

Stengel(1997: 587)은 교과가 학문과 맺을 수 있는 관계 양상들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 (1) 학문과 교과는 연속적이다.
- (2) 학문과 교과는 불연속적이다.
- (3) 학문과 교과는 서로 다르지만 다음의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 (a) 학문이 교과에 선행한다.
 - (b) 교과가 학문에 선행한다.
 - (c) 학문과 교과가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각각의 입장을 상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tengel, 1997). 우선, 학문과 교과가 상호 연속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과가 그것의 목적, 실체, 그리고 그 실체에 있어 기본적으로 학문에 연속적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Bruner가 1960년대에 주장했던 ‘지식의 구조’ 논의의 경우가 이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될 때, 교과는 곧 그것의 모학문의 전형이 되며, Bruner(1960: 14; Schiro, 2013: 20에서 재인용)가 “물리학을 배우는 아동은 곧 물리학자이다”고 논했던 바와 같이 교과는 단순히 학문의 지식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사고하고 느끼는 방식까지 함께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chiro, 2013). 다음으로, 교과가 학문과 불연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oddings의 경우 학교교육의 목적이 유능하고, 배려있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받을 만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문들은 교과에 있어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과와 학문이 서로 다르지만 관련이 있다는 입장은 다시금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째는 학문이 교과에 선행한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통념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교과관에 해당하는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교수법적으로 전환하여 ‘뭉게’ 만든 것이 곧 교과라고 본다(Stengel, 1997; 이상은, 2013a에서 재인용). 여기서 ‘뭉게’

만드는 것, 즉 학문의 단순화 내지는 변형은 주로 교과교육자 혹은 교사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과는 곧 이들의 교수학적 추론에 의해 변형된 학문적 지식으로 간주된다(소경희, 2010). 둘째로, 교과가 학문에 선행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의 경우 발달주의자인 Herbart의 관점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그는 발생 반복설을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정은 학문적 지식의 발달과정을 되풀이하므로 학생들은 구체적 성격의 교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인류의 역사적 지혜를 담고 있는 학문적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이상은, 2013a: 46). 마지막으로, 교과는 학문과 변증법적 관련을 맺는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Dewey의 논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즉, 학습자의 현재 경험과 학문적 지식은 연속선 상에서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기준의 역할을 한다(Stengel, 1997; 이상은, 2013a에서 재인용).

이러한 Stengel(1997)의 논의는 교과와 학문을 서로 분리하고, 양자가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tengel(1997)의 논의는 학문과 교과의 관계와 관련한 통념적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학문에 “물탄(watered down) 버전(Stengel, 1997: 589)”을 곧 교과라 보는 시각은 유일무이한 관점이 아니라 교과가 학문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Goodson(1997)의 논의는 교과와 학문간의 관계를 특히 중등교육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는 교과를 크게 세 가지 전통 즉, 1) 학문적(academic), 2) 실용적(utilitarian), 3) 교수방법적(pedagogic) 전통으로 분류한 바 있다(Goodson, 1997). 여기서, 학문적 전통의 교과들은 실용적, 교수방법적 전통의 교과들과는 달리 전문적·학문적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주로 이론적·추상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Goodson(1985; 진영은·조인진, 2001: 3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예컨대 지리학과 같은 학문적 전통의 교과들은 초기에는 교수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관심에 집중하다가 차츰 학문적 관심을 제기하고,

나아가 경제적·인적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게 되며 교과와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과와 관련된 대학의 학문 분야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학과가 설립되고 학문적 관심을 위해 학회와 연구회 등이 결성된다. 즉, 이제는 교과와 내용과 성격이 현장의 실천가들 보다는 이와 멀리 떨어진 전문 학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Goodson & Dowbiggin, 1990). 이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제 삶의 현장과는 무관한, 그리고 자신들의 학습능력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학문적인 교과지식을 맞이하게 되었다(Goodson & Dowbiggin, 1990). 말하자면, 대학에서 ‘지리학자를 배출’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정작 지리학 자체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반응하는 교과가 된 바, 중등교육을 위한 그 본래적 의미를 잃어가고 대학 전문가들의 요구나 관심에 의해 완전히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다(Goodson & Dowbiggin, 1990).

그렇다면, 교과가 학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관계맺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최근의 포스트모던주의 내지는 해체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교육과정 논의에서는 교실 맥락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교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저항’하며 나아가 교과를 새로이 ‘변형’ 하거나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Popkewitz(2009)는 교과가 연구실이나 대학과 같은 학문적 조직 및 문화적 실재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alchemy)”과 같다고 비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는 실상은 학문적 실재를 의미있게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과학적 전문 지식에 이상적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이와 아동의 학습활동 간에 상하위계를 새겨넣게 된다. Popkewitz(2009)는 교과에 견고히 내재된 번역의 논리를 부수려는 시도를 할 때 ‘다른 미래(other futures)’를 열어감으로써 주체성(agency)과 저항(resistance)이 가능하다고 논하였다.

이상은(2013a; 2013b)은 국가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를 둘러싼 ‘교과되기’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학문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

본적인 아이디어가 학교교과의 중심축이자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모든 내용은 이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이 드러났음을 지적한다(Cherryholmes, 1998; 이상은, 2013b: 193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대안적 사유방식으로서, 그녀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이상은, 2013b: 196). 첫째는 학문도 가변적인 것인 바, 따라서 지나치게 근대적 분과학문의 고정된 구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과 지식간의 새로운 접속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Doll(1993)의 논의는 특히 교사와 학생에게 적극적인 저항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Doll(1993)은 “세상의 지식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반성적 행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생성된다(p. 171)”는 인식론적 입장 하에 교육과정을 ‘춤(dance)’에 비유한다. 즉,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내용 선정, 경험의 설계에 이르는 ‘움직임(motions)’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일어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그들이 추는 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은 상황적 요인, 즉 그들과 가까운 맥락의 역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형된다는 것이다(Doll, 1993).

Deleuze & Guattari(2003; 주재홍, 2013, 김영천·주재홍, 2009에서 재인용)의 사고 역시 Doll(1993)의 논의와 궤를 함께 한다. 그들의 사고에 따를 때 전통적인 교과는 ‘수목적 지식’으로 점철된다. 수목적 지식이란 위계적인 중심이 있으며 정통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사유나 활동의 흐름을 통일하고 서열과 순위로 계열화하려는 지식을 가리킨다. 또한, 나무의 뿌리가 일자로 곧게 뻗어 있듯이 지식 역시 하나의 특권적인 지식으로 곧게 뻗어있다(김영천·주재홍, 2009). 그러나, ‘리좀(rhizom)’의 개념 또는 ‘리좀적 사유’에서 바라볼 때 교과의 지식은 고정되고 궁극적인 근원에 의한 위계적 관계를 갖기 보다는 지식과 지식간의 끊임없는 접속을 허용하며 따라서 창조적인 생성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주재홍, 2013). ‘리좀’은 뿌리줄기를 뜻하며, 통제하는 주체도 없고 중심도 없기 때문에 비위계적이고 비구조적이다. 그런 만큼, 여러 방향으로 열린 체계이고, 접속

되는 항들이 늘거나 줄어듦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가변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주재홍, 2013). 이러한 리즘적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교과지식은 위계상 우위로 상정된 하나의 특권적 지식을 향해 선형적으로 도달해 가는 양태만을 취한다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사유를 통해 다양한 차이들을 끊임없이 생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교과가 단순히 학문의 동의어나 혹은 이것을 ‘물계’ 만든 버전(Stengel, 1997)이라고 이해될 경우에 특히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을 소외시킨 채 교과가 탈맥락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적 사유의 방식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육과정관을 취하게 될 때 교과는 더 이상 학문의 논리에만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는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며, 특히 이 역할을 교사와 학생 역시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목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다양한 과목들이 신설되어 온 바 있다. 특히, 고등학교급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종전에 비해 다양한 교과목의 신설이 대폭 확대되었다(소경희, 2017). 제6차 교육과정 해설서(교육부, 1992a)는 교과목 신설의 배경을 “학생의 다양한 개성, 적성, 능력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별, 특성별 과목을 개설하였고, 시대적,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p. 72)”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시기별 과목 신설의 변천 과정을 수학 교과(군)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제6차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군) 과목 변천과정

개정시기	과목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필수 과목: 공통 수학 · 과정별 필수 과목: 수학 I, 수학 II, 실용 수학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수학 · 일반 선택 과목: 실용 수학 · 심화 선택 과목: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2007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목: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2009 개정 (2011년 8월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기초 수학 · 일반: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 심화: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201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과목: 수학 · 일반 선택: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 진로 선택: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우선 제6차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군) 과목은 공통 수학, 수학 I, 수학 II, 실용 수학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각 과목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통 수학’ 과목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고, ‘수학 I’은 ‘공통 수학’보다 발전된 내용의 과목이고, ‘수학 II’는 ‘수학 I’보다 심화, 확장된 내용이며 ‘실용 수학’의 경우 수학의 실생활 적용면을 강조한 과목으로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실업계 고등학교, 기타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하기에 알맞은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1992b).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인 ‘수학’을 비롯하여 실용 수학, 수학 I, 수학 II 및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은 학습 위계가 정해진 과목인 반면에, 실용 수학,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은 10단계, 즉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의 도달 여부에 관계 없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생활 문제의 해결을 과목의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부, 1997a; 변미나, 2014). 또한, ‘실용 수학’ 과목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모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성격의 과목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실용 수학’ 과목이 사라지고 대신에 수학, 수학 I, 수학 II 과목과 더불어 새로이 신설된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과목이 수학 교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수학의 활용’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을 학습한 학생이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수학적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과목이라 명시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을 이수한 후 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은 대학에 진학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이수하기에 알맞은 과목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적분과 통계’ 및 ‘기하와 벡터’ 과목은 자연 계열 또는 공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2011년 8월 고시)에서는 수학 I, 수학Ⅱ, 기하와 벡터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학교 수학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교육과학기술부, 2011: 39)”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 수학 I 과 수학Ⅱ의 내용을 이해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 ‘미적분 I’과, 미적분 I의 내용을 이해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 ‘미적분Ⅱ’ 및 심화과정 과목으로 일반과목에서 학습한 수학의 기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고급 수학 I’ 및 ‘고급수학 Ⅱ’ 과목이 신설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확률과 통계’ 과목은 미적분 I 이나 미적분Ⅱ의 내용을 이해한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두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되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 영역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과목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었다(교육부, 2015b).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과목들은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이다. 우선 ‘실용 수학’ 과목은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c: 117). 또한 ‘기하’ 과목은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기하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교육부, 2015c: 107), ‘경제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I’을 학습한 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교육부, 2015c: 127)으로, ‘수학과제 탐구’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과제 탐구 능력을 향상시

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교육부, 2015c: 139)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 수학’ 과목의 경우 교과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수학과제 탐구’의 경우 탐구 방법이 전면으로 드러난 심화 과목의 성격을 띠는 점이 드러난다.

이상의 국가교육과정 내 수학 교과(군)의 과목 신설 변천 과정을 통해 볼 때, 과목들간의 위계를 중심으로 설정된 수학 I 및 II 과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크게 보았을 때는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으나 몇몇 과목들이 1) 분화되거나, 2) 신설되거나, 혹은 3) 폐지되는 형태로 변화를 보여온 것을 알 수 있다(변мина, 2014). 특히, ‘기초 수학’이나 ‘수학의 활용’과 같은 과목들이 신설되었다가도 얼마 지나지않아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목이 새로이 신설된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모학문의 체계 내에서 심화된 혹은 기초적인 성격을 띠는 과목들이 신설과 폐지를 거듭하였는데, 특히 심화 과목 중에서는 탐구 방법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사례(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과제연구’)보다는 내용 체계상으로 심화된 과목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타의 교과나 혹은 분과 학문과의 통합적 성격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과목은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수학’이 유일하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의 특성은 비단 수학 교과(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변мина(2014)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 이외의 여타의 교과(군)에서도 내용의 위계에 따라 과목 간에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온 경향이 있는데, 과목명에 굳이 ‘심화’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 수준에 위계가 있어 선수 과목 이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학습이 어려운 과목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과목의 신설, 폐지, 흡수, 통합 등의 과정으로 변화를 겪는 모습 역시 쉽게 포착되었다(예: 국어 교과(군)의 ‘매체연구’ 과목). 이를 통해 볼 때,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과목들만으로 단위 학교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수준에서 무한정으로 과목을 늘려갈 수는 없는 바,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에 과목의 신설 권

한을 부여한 맥락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단위학교 과목 신설권 발달과정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 내지는 일반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에 있어 단위학교의 과목 신설권이 최초로 명시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이었다. 이후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표 II-2>와 같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화해 왔다.

<표 II-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고등학교 단위학교 과목
신설권의 발달과정(제6차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신설 허용 범주	과목 신설 허용 단위 수
6차	‘교양선택’ 교과의 ‘과정별 선택과목’	4단위
7차	‘교양’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중 ‘기타’	4단위
	‘교양’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	미지정
2007	2~3학년	미지정
2009	1~3학년	미지정
2015	1~3학년	미지정

<표 II-2>를 살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의 ‘교양선택’ 교과의 ‘과정별 선택과목’ 4단위에 한하여 과목의 신설이 가능하였다. 이를 두고, “학교장은 시대적, 사회적 발전과 필요에 따라 편제에 제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교양 선택 과목으로 이수시키고자 할 경우 전문 교과 중에서 선택, 편성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1992a: 106)”고 명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신설 과목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승인을 얻

어야(교육부, 1992a: 106)”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중 ‘기타’ 4단위 및 ‘교양’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에 한해 새로운 과목의 신설을 허용하였다(교육부, 1997a).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신설 과목”이라 칭하고 이것의 설치·운영을 허용하게 된 배경으로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교육부, 1997b: 142)”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교양 교과에 한정되어 있던 과목 신설권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확대되었다. 즉, 학교는 특정 교과 뿐만이 아니라 별다른 제약 없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2~3학년)에서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이리하여, 종전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 중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교양 과목의 성격으로만 신설될 수 있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 해당 교과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191). 이로써,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구현이라는 소기의 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소경희, 2017). 이러한 기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 및 확대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하에 1)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²⁾, 2)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 3)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09; 교육부, 2011; 교육부, 2013). 이는 학교의 물리적 경계나 학교급을 벗어난 과목은 물론 해외의 과목 역시도 단위학교에서 신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학교 신설 과목의 실질적인 외연을 보다 넓힌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교과(군)별로 이수

2) 예컨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 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교육부, 2014: 56).

단위를 담당하였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는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과목들을 ‘공통 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이수 단위를 별도로 배당하고 있는 바(교육부, 2015a), 단위 학교가 신설 과목의 개설을 위해 가용한 실질적인 이수 단위수는 종전에 비해 다소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위학교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기조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 적용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3)상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교육부, 2013: 23)”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도 수준에서의 지침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신설 과목 운영의 시행 전 학년도에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과목명과 이수 단위 수, 교과목 신설의 필요성 내지는 목적, 교재 개발 또는 선정 계획, 지도 교사 확보 방안 등을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4; 경기도교육청, 2016a;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³⁾. 이 때,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설 과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이나 위탁 교육 기관에서의 직업 교육,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 등도 이수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4; 경기도교육청, 2016a;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

3) 다만, 인천의 경우 타 시·도 교육감이 과목 신설을 기 승인한 과목의 경우, 교육청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16).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과 면담(interviewing)을 함께 활용한다. 문서 분석은 면담시에 연구 참여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바(Patton, 1990), 학교 신설 과목의 특징을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적절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서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 신설 과목이 어떻게 개설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서 분석의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분석 대상교 중 일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연구 방법, 즉 문서 분석과 면담에 따른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문서 분석

본 연구에서 문서 분석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문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의 대상을 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7년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10. 일부개정)⁴⁾ 제 76조의 3(고등학교의 구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1) 일반고등학교, 2) 특수목적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하는 고등학교”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특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설된 과목 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맥락에서 신설된 과목에 좀 더 관심을 두는 바,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정하였는데, 이들 시도의 2016학년도 기준 일반고등학교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 대비 49.8%,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41.7%로 여타의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문서의 표집에 있어 시도간 차이로 인한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 신설 과목의 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드러내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들 중 분석 대상교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문서 분석 대상교의 선정 절차와 분석 자료를 기술한 후, 그에 따른 상세한 분석 준거와 분석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분석 대상교 선정

본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의 학교자율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서 분석이란 문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일컫는다(Patton, 1990; Bowen, 2009). 즉, 문서를 검토하고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고 이해를 구하며 경험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Bowen, 2009). 문서 분석은 양적 문서 분석(quantitative document analysis)과 질적 문서 분석(qualitative document analysis)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에서 양적 문서 분석은 텍스트에 나오는 특정 요소들의 빈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일컫는다(Scott, 2006, Hesse-Biber & Leavy,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질적 문서 분석의 경우 양화와 유목화보다는 텍스트 내에 포함된 의미와 해석의 풍부함을 드러내는데 좀 더 초점을 두게 된다(Hesse-Biber

& Leavy, 2010).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문서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인데, 첫째는 학교 신설 과목이 편성된 양이며, 둘째는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양화 및 이를 통한 유목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양적 문서 분석과 맞닿아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학교 신설 과목이 학교교육과정 문서내의 어떠한 의미체계 내에 분류되어 있고 어떠한 명칭이 붙여져 있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질적 문서 분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신설 과목의 명칭을 드러내는데 있어 연구자는 학교교육과정 편제표 및 교과별 진도표를 활용함으로써 과목명의 자구에 드러난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연구 문제에 맞게 양적 문서 분석과 질적 문서 분석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문서 분석 대상을 선정한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 유층 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선택한 까닭은 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학교 신설 과목이 ‘이러저러하게 개설된다’고 기술하는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반적’ 내지는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비례 유층 표집은 특정한 하위 집단이나 영역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데 있어 무선 표집과 비교했을 때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표집 방법으로, 표본의 구성 비율이 예컨대 성별이나 학년등과 같은 층화 변인(stratification variable)에 따른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표집 방법을 말한다(Johnson & Christensen, 2008). 본 연구의 경우,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즉 시도(서울/경기/인천), 학교유형(일반고/자율고), 설립유형(공립/사립),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읍지역·면지역·도서벽지), 학교규모(소규모/중규모/대규모)를 층화 변인으로 하여 다양한 학교들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학교교육과정 문서의 접근 가능성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분석 대상 선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는 ‘2016 유·초·중등 교육기관 현황⁵⁾’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소재 일반고등학교의 주요 현황을 확인하였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제외⁶⁾) 및 자율고등학교는 총 1,648개교이며,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654개교를 표집 가능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Krejcie & Morgan(1970; Johnson & Christensen, 2008에서 재인용)은 “주어진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p. 609)”를 제시한 바 있는데, 모집단의 크기가 654인 경우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242개이다⁷⁾. 이를 기준으로, 242개의 학교를 시도, 학교유형, 설립유형, 지역구분, 학교규모(학생수)를 고려하여 교육통계연구센터(<http://kess.kedi.re.kr>)의 샘플링 서비스를 통해 비례 유층 표집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사례들 가운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문서가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문서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총 242개의 학교들을 도표화하면 <표 III-1>과 같다.

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6) 종합고등학교란 실제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로 분류되나 보통과(인문과정)과 전문과(실업과정)가 모두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이는 전술한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맥락”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출처: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7) Krejcie & Morgan(1970)은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산정함에 있어 오차와 신뢰수준, 연구자가 과거의 자료(본 연구의 경우, 2016년 10월 기준의 전국 일반고 및 자율고 현황)로부터 예상하는 모집단의 수 및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최대한의 표본의 수를 이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표본 선정 방식은 표본을 통한 추론통계를 위함이지만, 본 연구의 경우 학교 단위의 문서분석 역시 분석을 통해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종의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므로, 상기의 표집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III-1> 문서 분석 대상교 선정 결과

구분			사례수(개)	백분율(%)
시도	서울		87	36.0
	경기		118	48.8
	인천		37	15.3
	계		242	100.0
학교유형	일반고		224	92.6
	자율고	자율형공립고	10	4.1
		자율형사립고	8	3.3
	계		242	100.0
설립유형	공립		157	64.9
	사립		85	35.1
	계		242	100.0
지역구분	대도시		121	50.0
	중소도시		104	43.0
	읍·면·도서벽지		17	7.0
	계		242	100.0
학교규모*	소규모		18	7.4
	중규모		88	36.4
	대규모		136	56.2
	계		242	100.0

* 학교규모의 경우, 201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개 학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0명 초과는 대규모, 500~1,000명은 중규모, 500명 미만은 소규모로 분류함.

나. 분석 자료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목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한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접속하여 상기의 분

석 대상교별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탑재된 학교교육과정 문서들을 확인하였다. 이 때, 분석 대상교들 간에 교육과정 분석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2016학년도 입학생 기준 3개년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확인 결과, 학교에 따라 “201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의 형태로 탑재한 경우도 있었고, “2016학년도 교육계획서”의 형태로 탑재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편제표 그대로 수집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교육계획서 내에서 2016년 입학생 기준 3개년도 교육과정 편제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수집하였다. 또한, 각 과목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문서로서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역시 수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42개교의 201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및 교과진도 운영계획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 분석 절차

일반적인 문서 분석 연구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1) 훑어 읽기(피상적인 검토), 2) 읽기(철저한 검토), 3) 해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Bowen, 2009).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정보들을 연구 문제와 관련된 유목들로 조직해가는 과정과 분석 자료 내의 패턴을 인지해가는 과정이 함께 수반된다(Bowen, 2009). 본 연구의 경우, 문서 분석과 연결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로 문서 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분석 유목 및 분석 단위에 따라 유목화하여 양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연구자는 분석 대상 문서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내려가며 유목화 및 양화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문서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들만을 찾아 분리해내고 이것들을 양화하였다. 예컨대, 학교

신설 과목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편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따르는 정의(I 장 3절의 “용어의 정의”에 기술)에 맞는 학교 신설 과목을 각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문서에서 찾아 양화하였다. 특정한 과목이 학교 신설 과목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2013년 12월 18일 고시) 총론에 제시된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과목명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2015년 9월 23일 고시)에서 제시된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의 경우 2016년 3월 1일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2013년 12월 18일 고시) 총론에 제시된 전문 교과를 대체하여 편성될 수 있는 바(교육부, 2015a), 이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학교 신설 과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문서를 통해 드러나는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현황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문서 분석 이전에 연구자가 검토한 이론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학교교육과정 편제표와 교과진도 운영계획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각 단위학교들이 신설 과목을 어떠한 범주에 넣고 어떠한 이름을 붙여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명칭으로 과목들을 신설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할 시에는 교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물들에서 다룬 주요 개념과 관점들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문서 분석 이전에 검토한 이론적 관점들을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문서 분석을 통해 원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점이나 모순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으며, 해석을 위한 관점을 교육과정 전공 지도교수 및 전공생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검토 및 적용해봄으로써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문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제나 코드 등은 다른 연구 방법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Bowen, 2009), 문서 분석 결과는 이후의 면담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면담의 결과를 정리하는데 있

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2. 면담

가. 연구 참여자 선정

문서 분석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interviewing)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생산되는 대화적 실천을 일컫는다(Given, 2008). 본 연구에서 면담과 문서 분석은 학교 신설 과목에 대한 이해라는 동일한 연구 목적하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바, 문서 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에 얻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례를 추출하여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Patton, 1990)’을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거친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풍부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단일 사례 보다는 다수의 사례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문서 분석 결과, 분석 대상교들은 학교 신설 과목을 얼마나 편성·운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학교, 2) 1~2개 개설한 학교, 3) 3~4개 개설한 학교, 4) 5개 이상 개설한 학교가 그것이다. 또한, 학교 별로 개설되는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에 있어서도 모종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신설 과목의 개수에 따른 네 가지 범주 중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를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세 가지 범주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적어도 1인 이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었으며, 이들 학교들이 개설한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 역시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들 중에서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또는 운영에 관여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였는데, 이 때 학교 신설 과목의 수업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 및 학교교육과정 전반의 편성 작업에 관여한 교육과정 관련 업무 담당교사(예: 교무기획부장 또는 교육과정부장) 등 교사의 담당 업무 내지는 보직 역시 고려함으로써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풍부한 관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교사들 중에서 학교를 통해 직접 유선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과 진행 기간, 진행 과정, 비밀 보장 및 연구 참여에의 이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한 5인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 중 첫 번째는 김정원 교사로 올해 경력 24년차의 영어교사이며 보직으로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A고등학교는 사립 일반고등학교로, 학교 신설 과목으로 수학연습 I 및 수학연습Ⅱ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목은 타 학교에서 기 승인을 받은 학교 신설 과목으로서 A고등학교에 개설되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는 백승리 교사로 올해 경력 15년차의 과학 교사이다.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B고등학교는 공립 일반고등학교로 총 4과목의 학교 신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녀는 ‘발명과 문제해결’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목은 B고등학교가 2014년도에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승인받은 학교 신설 과목이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는 임한결 교사로, 올해 경력 5년차의 사회 교사이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C고등학교는 사립 일반고등학교로 총 5과목의 학교 신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는 ‘창의융합글쓰기’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목은 C고등학교가 2015년도에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승인받은 학교 신설 과목이다.

네 번째 연구 참여자는 성의현 교사로, 올해 경력 19년차의 사회 교사이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D고등학교는 사립 일반고등학교로 총 8과목의 학교 신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는 ‘미디어와 사회’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목은 D고등학교가 2015년도에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승인받은 학교 신설 과목이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는 유진혁 교사로, 올해 경력 21년차의 윤리 교사이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E고등학교는 사립 일반고등학교로, 총 20개의 학교 신설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는 보직으로 교무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 과목 및 ‘인문학적 상상여행’ 과목의 수업을 맡고 있었다. 이 두 과목은 모두 타 학교에서 기승인을 받은 학교 신설 과목으로서 E고등학교에 개설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참여자 명단

	이름 (가명)	성별	담당 교과	교직 경력	학교 신설 과목 관련 담당업무	소속교 개황 (가명)	소속교 과목 신설 현황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교육과정 기준)
1	김정원	남	영어	24년차	• 교육과정부장	A고등학교 /사립/일반고	2과목: 수학연습 I, 수학연습II
2	백승리	여	과학	15년차	• 학교 신설 과목 ‘발명과 문제해결’ 수업 담당	B고등학교 /공립/일반고	4과목: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발명과 문제해결, 생활과 창의성
3	임한결	남	사회	5년차	• 학교 신설 과목 ‘창의융합글쓰기’ 수업 담당	C고등학교 /사립/일반고	5과목: 인문수학, 자연수학, 수학연습 I, 수학연습II, 창의융 합글쓰기
4	성의현	남	사회	19년차	• 학교 신설 과목 ‘미디어와 사회’ 수업 담당	D고등학교 /사립/일반고	8과목: 자연통합수학, 미디어와 사회, 법과정치연구방법론, 경 제연구방법론, 사회문화연구방법론, 법과정치과제연구, 경제 과제연구, 사회문화과제연구
5	유진혁	남	윤리	21년차	• 교무부장 • 학교 신설 과목 ‘인문학적 상상여행’ 및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 수업 담당	E고등학교 /사립/일반고	20과목: 국어연구방법론,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수학과 제연구, 경제연구방법론, 법과정치연구방법론, 윤리연구방법 론, 역사연구방법론, 윤리과제연구, 생명과학과제연구, 화학과 제연구, 인문학적상상여행,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이해, 인문 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인문학의 창을 통해 본 미술, 모바일프로그래밍, 발명특허기초, 생활과 창의성, 생명공학 기초

나. 자료 수집

면담을 위한 예비 조사는 2016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는 선정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2회의 대면 내지는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면담은 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하는 형태로 회당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담 초기에는 해당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둘러싼 맥락 및 이와 관련한 교사의 개인적 배경이나 관점을 파악하였고,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문서 분석에서 도출해낸 결과 및 이전의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해당 신설 과목의 과목명의 명명 계기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해당 신설 과목이 종래의 교과 내지는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등에 초점을 두었다.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를 거쳐 녹음되었으며 추후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면담 대상자의 소속교별로 관련된 현지자료, 예컨대 해당학교의 학교 신설 과목 수업과 관련한 학습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다.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면담 자료에 대한 모든 반응은 연구자와 전사된 자료 간의 상호작용인 바(Fish, 1980; Rosenblatt, 1982; Seidman, 2009에서 재인용),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부분 및 연구 주제가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과 특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관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이어서, 연구자는 우선 본 연구에서 면담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 즉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중심으로 전사 자료를 계속적으로 읽으며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나 주요 내용들을 서로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범주로 묶었다. 연구 초기에는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있어 수업 운영상의 특징이나 해당 신설 과목의 개설 배경 등이 혼재되어 연구의 초점이 다소 분명치 않았다. 예컨대, 수업 운영상의 특징에 있어 ‘교과 보다는 “주제” 중심의 수업’, ‘토론, 발표, 글쓰기 위주의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이 “자유로운” 수업’ 등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신설 과목의 개설 배경 측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 ‘특정 교사 주도의 노력’, ‘학교를 둘러싼 맥락’ 등과 같은 범주들이 도출되어 이에 따라 해당 사례를 더 모으거나 범주 간을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범주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애초에 본 연구가 출발하게 된 문제의식, 즉 통념적 의미의 교과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범주들을 추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크게 ‘기존 학문으로부터의 탈주’라는 범주와 ‘기존 학문과의 관련성’이라는 범주가 발견되었다. 즉, 범주가 초기에 비해 좀 더 간결해지면서 논의의 초점을 ‘교과가 기반 학문과 맺는 관계’로 좀 더 한정하여 범주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연구 결과들을 문서 분석의 결과들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반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결과가 나타내는 고유한 특징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지니는 의미를 선행연구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 연구 목적, 문제의식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범주화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들을 탐색하고 거기에 비추어 현상의 의미를 풍부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있어, 교육과정 전공 지도교수 1인 및 교육과정전공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에 대한 의미부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연구자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IV.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하여 학교 신설 과목의 수와 유형을 살핀다. 특히 학교 신설 과목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학교교육과정 편제표상에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목명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풍부한 이해를 위해 해당 과목의 수업 내용을 구체화한 과목별 진도 운영 계획 및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활용한다. 연구자는 본 장에서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의 양적, 질적 측면을 아울러 드러냄으로써 V장에서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학교 신설 과목의 수

본 절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제표상에 제시된 학교 신설 과목의 수를 연구 대상교들의 배경, 즉 학교유형, 설립유형, 학교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학교유형, 즉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및 자율형사립고)에 따른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 개설 현황(학교유형별)

과목수	일반고		자율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소계	
	사례수 (개)	백분율 (%)	사례수 (개)	백분율 (%)	사례수 (개)	백분율 (%)	사례수 (개)	백분율 (%)
0	94	42.0	7	70.0	6	75.0	13	72.2
1~2	99	44.2	3	30.0	1	12.5	4	22.2
3~4	22	9.8	0	0.0	0	0.0	0	0.0
5 이상	9	4.0	0	0.0	1	12.5	1	5.6
계	224	100.0	10	100.0	8	100.0	18	100.0

<표 IV-1>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가 42.0%, 자율고등학교가 72.2%로, 자율고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자율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사례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5개 이상의 과목을 신설한 학교가 1개교(자율형사립고)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설립유형(공/사립)에 따른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2>과 같다.

<표 IV-2>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 개설 현황(설립유형별)

과목수	공립		사립	
	사례수(개)	백분율(%)	사례수(개)	백분율(%)
0	63	40.1	44	51.8
1~2	73	46.5	30	35.3
3~4	18	11.5	4	4.7
5 이상	3	1.9	7	8.2
계	157	100.0	85	100.0

<표 IV-2>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공립학교가 40.1%, 사립학교가 51.8%로, 공립학교에서의 개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5과목 이상을 신설한 학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학교는 1.9%, 사립학교는 8.2%로 사립학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학교규모(학생수를 기준으로 소규모/중규모/대규모)에 따른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 개설 현황(학교규모별)

과목수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례수(개)	백분율(%)	사례수(개)	백분율(%)	사례수(개)	백분율(%)
0	9	50.0	47	53.4	51	37.5
1~2	9	50.0	28	31.8	66	48.5
3~4	0	0.0	10	11.4	12	8.8
5 이상	0	0.0	3	3.4	7	5.1
계	18	100.0	88	100.0	136	100.0

상기 <표 IV-3>을 통해 볼 때,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이 37.5%로 가장 낮았으며,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3과목 이상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일수록 과목을 신설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과목 신설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인 지도 교사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큰 난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민용성 외, 2011).

2.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

가. 분류체계

본 연구의 문서분석 대상교들은 ‘직업과정(위탁)’이라는 대분류를 사용한 1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교육과정에서의 교과영역 및 교과(군)들에 따라 학교 신설 과목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각 교과영역 및 교과(군)별로 학교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를 분석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교 신설 과목의 분류체계별 개설 학교 수

교과영역	교과(군)	개설 학교 수(개)
기초	국어	4
	수학	204
	영어	6
	소계(A)	214
탐구	사회	21
	과학	32
	소계(B)	53
체육·예술	체육	0
	예술	3
	소계(C)	3
교양	기술·가정	0
	제2외국어	3
	한문	0
	교양	78
	소계(D)	81
기타(E)		5
총계(A+B+C+D+E)		356

우선 교과(군)별로 보았을 때, 수학 교과(군)에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총 204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교양 교과(군)의 경우에도 총 78개교가 신설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타의 교과(군)들의 수치를 크게 웃돈다. 일부 교과(군)들, 예컨대 체육이나 기술·가정, 한문의 경우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요컨대, 학교 신설 과목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의 분류체계, 즉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군)의 분류체계를 따라 개설되고 있었으나 일부 소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벗어난 학교 신설 과목들이 개설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군)별 신설 비중을 보면 주로 수학이나 교양과 같은 특정 교과(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과목명

본 절에서는 과목명을 토대로 학교 신설 과목들을 유형화해본다. 과목명은 학생 및 교사에게 해당 과목의 수업이 어떠한지를 명료하고도 손쉽게 드러내어주고 상기시켜주는 표지라 볼 수 있는 바(Newsom, 1963, Burgess, 1984에서 재인용), 과목명의 분석을 통해 학교 신설 과목들을 질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질적 문서 분석 및 면담을 함께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질적 문서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편제표상의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을 교과 영역 및 교과(군)별로 추출하였는데, 동일한 명칭의 신설 과목들이 여러 학교에 걸쳐 개설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바, 각각의 과목명들을 개설 학교 수와 함께 제시하였고 이어서 과목명에 담긴 질적 특성을 분석 및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별 진도 운영 계획’ 문서상의 과목별 세부 내용 및 교사들과의 면담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1) 기초 교과 영역

이하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별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국어 교과(군)에 개설된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을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국어 교과(군)

신설 과목명	개설 학교 수(개)
국어연구방법론	1
논리적 글쓰기	1
독서와 의사소통 1	1
독서와 의사소통 2	1
계	4

국어 교과(군)의 경우 신설 과목의 사례수는 적으나, ‘연구방법론’, ‘글쓰기’, ‘의사소통’과 같은 어휘가 과목명에 포함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국어연구방법론의 경우 일반고 1개교에서 개설된 과목이며 나머지 세 과목은 모두 자율형 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수학 교과(군)의 경우를 분석하면 아래 <표 IV-6>과 같다.

<표 IV-6>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수학 교과(군)

신설 과목명	개설 학교 수(개)
수학연습1	78
수학연습2	57
인문통합수학	28
자연통합수학	26
수학과제연구	2
응용수학	2
인문수학	1
자연수학	1
수리탐구	1
심화수학1	1
선형대수학	1
심화미적분학	1
심화통계학	1
AP미적분학	1
Math1	1
경제기초수학	1
공업수학	1
계	204

위의 <표 IV-6>를 통해 볼 때, 수학 교과(군)의 경우 ‘수학연습 1·2’,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이 다수의 학교에 걸쳐 지배적인 비율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연습 1·2’의 경우 기존의 기반 교과명에 ‘연습’이라는 어휘를 결합한 과목명이며, 이는 민용성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 시수 확보 및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한 성격의 과목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인문·자연통합수학’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구분을 반영하는 바, 네 과목 모두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교과를 보충학습 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과목명에서 일면 드러난다.

이외에도 <표 IV-6>을 통해 볼 때 비록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1)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 ‘심화통계학’ 등 학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 영역(미적분학, 통계학)이나 ‘심화’라는 이름이 과목명의 전면에 드러난 과목들, 2) ‘AP미적분학’이나 ‘Math1’과 같은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 및 3) ‘경제기초수학’, ‘공업수학’과 같이 과목명에 타 교과가 포함된 과목 역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표 IV-6>에서 총 8과목(‘수리탐구’, ‘수학과제연구’, ‘심화수학1’,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 ‘심화통계학’, ‘AP미적분학’, ‘경제기초수학’)이 모두 동일한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난 바, 수학 교과(군)의 경우 학교 내 신설 과목의 다양성에 있어 학교간의 격차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 교과(군)의 신설 과목명을 분석해보면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영어 교과(군)

신설 과목명	개설 학교 수(개)
영미문학1	1
영미문학2	1
시사영어	1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1
비평적 읽기와 쓰기	1
Critical Reading	1
계	6

영어 교과(군)의 경우 총 여섯 가지의 신설 과목명이 분석되었는데, 이 중에서 ‘영미문학1·2’의 경우 기반 학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 영역(영미문학)이 과목명에 드러난 사례에 해당하며,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비평적 읽기와 쓰기’, ‘Critical Reading’ 역시 영어 교과(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기능을 중심으로 보다 심화한 성격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ritical Reading’ 1과목은 일반고 1개교에서,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나 영어 교과(군)의 경우에도 학교 내 신설 과목의 다양성에 있어 학교간의 격차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2) 탐구 교과 영역

다음으로는 탐구 교과 영역의 경우를 살펴본다. 우선 사회 교과(군)의 신설 과목명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사회 교과(군)

신설 과목명	개설 사례 수(개)
법과 정치 과제연구	3
경제 과제연구	2
사회문화 과제연구	2
법과 정치 연구방법론	2
경제 연구방법론	2
사회문화 연구방법론	1
윤리 과제연구	1
현대사회와 철학	1
세계문명사	1
금융시장의 이해	1
미디어와 사회	1
거시경제	1
AP 미시경제	1
Micro Economics	1
Macro Economics	1
계	21

사회 교과(군)의 경우 ‘과제연구’ 및 ‘연구방법론’이 과목명에 포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2009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3)에는 보통교과의 사회 교과(군) 심화 과목으로 ‘과제연구’ 과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한 ‘법과정치과제연구’(3개교), ‘경제과제연구’(2개교), ‘사회문화과제연구’(2개교), ‘윤리과제연구’(1개교) 과목이 학교 신설 과목으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세분화된 ‘법과정치연구방법론’(2개교), ‘경제연구방법론’(2개교), ‘사회문화연구방법론’(1개교) 과목도 개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세계문명사’나 ‘금융시장의 이해’, ‘미디어와 사회’와 같이 기반 학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 영역이 과목명에 포함된 과목들도 각각 1개교에서 개설되는가 하면, ‘AP미시경제’, ‘거시경제’, ‘Micro Economics’, ‘Macro Economics’와 같이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도 각각 1개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회 교과(군) 역시도 ‘세계문명사’, ‘금융시장의 이해’, ‘현대사회와 철학’, ‘AP미시경제’, ‘거시경제’와 같은 5과목이 모두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되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 내 신설 과목의 다양성에 있어 학교간의 격차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 교과(군)의 신설 과목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 장의 <표 IV-9>와 같다.

과학 교과(군) 역시 사회 교과(군)과 유사하게 1)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보통교과의 심화 과목으로 제시된 ‘과제연구’ 과목을 보다 세분화한 ‘화학과제연구’(5개교), ‘생명과학과제연구’(3개교), ‘물리과제연구’(2개교), ‘지구과학과제연구’(1개교) 및, 2)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Chemistry I, Physics1, AP물리)(각 1개교), 3) 학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 영역이나 ‘심화’라는 이름이 과목명의 전면에 드러난 과목(심화생물, 심화화학, 심화생명과학, 컴퓨터과학, 해석역학, 전자공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세포생물학, 생화학)(각 1개교), 4) ‘특강’ 형태의 과목(물리특강1, 물리특강2, 화학특강1, 화학특강2, 지구과학특강1, 생물특강1, 생물특강2), 5) 타 교과 혹은 학문의 명칭이 결합된 과목(과학철학) 등이 분석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상의 과목들 중에서 총 17과목(컴퓨터과학, 심화생물, 심화화학,

AP물리, 물리특강1, 화학특강1, 생물특강1, 지구과학특강1, 물리특강2, 화학특강2, 생물특강2, 해석역학, 전자공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세포생물학, 생화학)이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나, 과학 교과(군) 역시 학교 내 신설 과목의 다양성에 있어 학교간의 격차가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사례 수: 과학 교과(군)

신설 과목명	개설 사례 수(개)
화학과제연구	5
생명과학과제연구	3
물리과제연구	2
지구과학과제연구	1
심화생물	1
심화화학	1
심화생명과학	1
과학철학	1
유기화학	1
생화학	1
세포생물학	1
분석화학	1
해석역학	1
전자공학	1
물리특강1	1
물리특강2	1
화학특강1	1
화학특강2	1
지구과학특강1	1
생물특강1	1
생물특강2	1
컴퓨터과학	1
Chemistry I	1
Physics1	1
AP물리	1
계	32

(3) 체육·예술 교과 영역

이어서, 체육·예술 교과 영역에는 체육 교과(군) 및 예술 교과(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교들 중에서는 체육 교과(군)에 과목을 신설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술 교과(군)의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사례 수만을 분석하였는데, 1) ‘기초회화’, 2) ‘연주’, 3) ‘미술조형’의 세 과목만이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1)~2)는 일반고 1개교에서, 3)의 경우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4) 생활·교양 교과 영역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는 기술·가정 교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2외국어와 교양 교과(군)에서만 과목을 신설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우선 제2외국어 교과(군)에 제시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사례 수를 분석한 결과, 1) ‘중국어 언어와 문화’, 2) ‘중국어문법’, 3) ‘일본어문법’의 세 사례가 분석되었다. 여기서 ‘중국어문법’과 ‘일본어문법’ 과목의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세분화 내지는 심화된 영역이 과목명에 드러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세 과목은 모두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교양 교과(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드러난 학교
신설 과목들의 과목명 및 개설 학교 수: 교양

신설 과목명	개설 학교 수(개)
과학융합	26
과학교양	22
시민교육	5
생활과 창의성	2
인문학적 상상여행	2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이해	2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2
생명공학 기초	1
수학적 모델링	1
전쟁사	1
빅히스토리	1
경영수학	1
역사로 보는 과학	1
발명과 문제해결	1
발명특허기초	1
진로와 기업가 정신	1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	1
인문학의 창을 통해 본 미술	1
리더십	1
생활과 교육	1
창의융합글쓰기	1
생활과 인성1	1
생활과 인성2	1
모바일프로그래밍	1
계	78

우선 ‘과학융합’ 과목과 ‘과학교양’ 과목이 각각 26개교와 22개교에 걸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일반고등학교 중 과학중점 학교들이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에 해당한다. 즉,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면, 과학중점학교들은 학생들이 ‘과학융합’ 및 ‘과학교양’ 과목과 기타 과학교과 심화과목 중 4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중에서 ‘과학융합’ 과목과 ‘과학교양’ 과목은 교양 교과(군)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이들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5개교 이하의 소수 사례에서 분석되었는데, 이들의 과목명을 살펴보면 여타의 교과(군)에 비해 좀 더 혼성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이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유목화될 수 있다.

우선, 해당 교과를 학문적으로 세분화 내지는 심화한 영역이 과목명에 드러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예컨대 ‘생명공학 기초’, ‘수학적 모델링’, ‘전쟁사’, ‘발명과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둘째로, 통합교과적 성격의 과목들, 예컨대 ‘빅히스토리’, ‘경영수학’, ‘역사로 보는 과학’,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이해’,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 ‘인문학의 창을 통해 본 미술’과 같은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구체적인 직업세계의 활동과 관련된 과목들 역시 발견되었는데, ‘발명특허기초’, ‘모바일프로그래밍’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과목명상 전통적인 교과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문학적 감성과 상상력’, ‘생활과 창의성’, ‘생활과 인성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보통교과 이외의 영역

분석대상교 중 일반교 1개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의 보통교과에 제시된 교과 영역 어디에도 구분되지 않고 “직업과정(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신설 과목을 개설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과목들은 총 5개로 주로 특정한 직무 중심의 과목들이 주를 이루는데, ‘공중보건학’, ‘미용기초실습’, ‘미용실습’, ‘위생법규’, ‘피부관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목들은 직업위탁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에 해당한다.

V.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

본 장에 앞서 학교 신설 과목이 얼마나, 어떠한 유형으로 개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 신설 과목의 양적, 질적인 개설 현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일부 과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통적인 기반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교과에 대한 통념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논하고자 한다.

1. 기반 학문으로부터의 탈주

교과는 사실 교육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중립적인 틀로서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학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교과명 역시 학문과 거의 동일하게 명명되어 왔다(한국교육과정학회, 2017; 소경희, 2017). 여기서 ‘학문’이라 함은 교과의 모태가 되는 ‘분과학문의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의 학문의 경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공고히 유지되어 오고 있는 근대적 학문 분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소경희, 2006; Rogers, 1997; 이상은, 2013: 213에서 재인용). 그 결과 교과는 통념적으로 “학문에 물탄(watered down) 버전(Stengel, 1997: 587)”으로 이해되어 왔으며(이상은, 2013), 교과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 역시 학문들의 분류가 선행된 후에야 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Schiro, 2013).

그러나 학교 신설 과목들의 분류체계와 과목명을 분석한 결과, 일부의 사례들은 교과가 그것의 기반 학문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복속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부터 자유롭게 탈주하여 생성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즉, Stengel(1997)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교과가 그것이 전통적으로 기반해온 단일 학문과 '불연속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테면, '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생활과 창의성', '생활과 인성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목들은 분류체계상 대부분 교양 교과(군)에 포함된 과목들이었는데, 그 명명 방식을 살펴보면 과목명상에 특정한 단일 학문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조차 나타나지 않으며 '창의융합글쓰기'처럼 여러 어휘가 동시에 결합되거나 혹은 '생활과 창의성', '생활과 인성'처럼 병렬적으로 연결되거나 혹은 '리더십'처럼 단일한 어휘로도 나타나는 등 일정하게 관통하는 명명 규칙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리더십', '창의융합', '창의성', '인성'과 같이 교과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자질이나 역량이 과목명의 전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상상여행'과 같이 그간 국가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과목명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어휘가 사용된 것 역시 특징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신설 과목들 중 '창의융합글쓰기' 과목을 담당하는 임한결 교사와 '인문학적 상상여행' 과목을 담당하는 유진혁 교사는 각각의 과목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임한결: 창의 융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전 교과 선생님들이 포진**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한거죠. 그래서 전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수업에.

임한결: 우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계열적으로 쭉 역사를 늘어놓고, 시기마다, 구석기와 신석기 이 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했고, 그 다음 고대 사회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 문화란 무엇인가... 역사라는 바탕 위에서 주제를 하나하나 뽑아내죠. (중략) 예를 들어, 저희 융합 수업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거든요. 체육 선생님들, 음악 선생님들, 사회, 국어, 영어 할 것 없이... [예컨대] **영어 [교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업**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할지... 기존 교과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아요?

유진혁: 인문학적 상상여행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나뉘져 있어요, 책 구조가... 근데 내용은 말 그대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문학을 소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철학을 가르치려고 철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창의융합글쓰기’ 과목은 “창의융합”이라는 범교과적 목표 하에 “역사라는 바탕 위에서” 추출한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 교과 선생님들이 포진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를 띠는 과목으로서 교과는 단일한 분과 학문을 묶기한 형태라는 통념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인문학적 상상여행’ 과목 역시 유 교사에 따르면 인문학이라는 보다 큰 범주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의 하위 영역들, 즉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이 서로 연결된 형태의 과목에 해당한다. 요컨대, 이러한 과목들은 전통적으로 교과의 기반이 되어 온 단일한 분과 학문의 체계나 논리와 무관한 형태로 새로이 생성된 교과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통념적인 교과의 의미, 즉 교과를 전통적인 단일한 기반 학문을 단순화 한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적극적인 탈주와 저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교과는 전통적인 기반 학문과 완전히 무관한 형태로도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목명의 일정한 명명 규칙을 찾기 어렵고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 교과 선생님들이 포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로 구현되는 바, 그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교과의 생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Pinar(2015)가 논한 교육의 사건성(eventfulness)과 관련될 수 있다. Pinar(2015)에 따르면, 교육의 사건성이라 함은 교육에 내재된 변화의 가능성 내지는 창발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건성, 말하자

면 “현재에서 발견 가능한 복수의 구체적인 가능성들(possibilities)”로부터 “개인 또는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 교육의 미래가 구축된다(Pinar, 2015: 40). 전술한 인문학적 상상여행, 창의융합글쓰기 등과 같은 학교 신설 과목들의 사례는 통념적으로 구축된 기반 학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의 가능성을 함의하며 현 시점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변화의 사례들 그 자체가 미래에 또 다른 새로운 교과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됨을 함의한다.

2. 기반 학문의 ‘변이’와 ‘가장된 변이’

한편, 학교 신설 과목들은 전술한 창의융합글쓰기나 인문학적 상상여행 과목처럼 기반 학문으로부터 탈주하여 생성된 사례들 보다는 오히려 기반 학문과의 연속성이나 관련성은 유지하되 그것의 ‘변이(變異)’로서의 과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변이의 유형은 이론적 배경에서 인용한 Stengel(1997)이 논하였던 학문과 교과의 관계와의 관련성 하에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는 교과가 기반 학문과의 연속성하에 ‘분화(分化)’된 형태를 띠는 것이고, 둘째는 교과가 상이한 학문들을 ‘결합(結合)’한 형태를 띠는 것이며, 셋째는 교과가 학습자 및 사회를 고려하여 기반 학문을 ‘변형(變形)’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실질적으로는 의미있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장(假裝)된 변이’의 특성을 보이는 신설 과목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첫째로, 일부 신설 과목들의 사례는 교과가 그것이 전통적으로 기반을 두어 온 분과 학문과의 연속성 하에 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분화는 다시금 두 가지 양태로 나뉘어 나타났는데, 하나는 학문의 내용체계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며, 둘째는 학문의 탐구 방법에 좀 더 방점을 두는 형태이다. 우선 학문의 내용체계를 명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학문을 분화한 형태의 신설 과목들은 ‘심화’라는 어휘를 기존

의 교과목명과 결합하거나, 혹은 ‘○○학(學)’과 같은 명칭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 ‘심화통계학’, ‘영미문학1·2’, ‘심화생물’, ‘심화화학’, ‘심화생명과학’, ‘컴퓨터과학’, ‘해석역학’, ‘전자공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과학철학’, ‘생명공학 기초’, ‘중국어문법’, ‘일본어문법’과 같은 과목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과목들의 대부분은 자율형사립고 1개교에서 개설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문의 탐구 양식이나 방법에 좀 더 강조점을 둔 과목들의 경우 주로 ‘○○연구방법론’, ‘○○과제연구’의 명칭으로 나타났는데, 각 교과(군)별로 ‘국어연구방법론’, ‘법과정치과제연구’, ‘경제과제연구’, ‘사회문화과제연구’, ‘윤리과제연구’, ‘법과정치연구방법론’, ‘경제연구방법론’, ‘사회문화연구방법론’, ‘화학과제연구’, ‘생명과학과제연구’, ‘물리과제연구’, ‘지구과학과제연구’가 그것이다.

둘째로, 일부의 학교 신설 과목들은 기존의 상이한 분과 학문들을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목들의 예로는 ‘공업수학’, ‘경영수학’, ‘역사로 보는 과학’, ‘빅히스토리’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경영수학’의 경우에는 경영학과 수학을, ‘역사로 보는 과학’의 경우에는 역사와 과학을 결합하였다는 점이 과목명에서 드러난다. 특히 ‘공업수학’의 경우에는 공업이라는 전문교과의 영역과 수학이라는 보통교과의 영역이 통합된 사례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일찍이 중등교육 맥락에서는 교과의 학습이 지나치게 분할적이고 분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학교 바깥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종합적 지식의 습득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Hargreaves & Macmillan, 1992;Sizer, 1984, 1992; Little, 1992에서 재인용). 특히 Dewey(1931)에 따르면, 동질성을 확보한 교육내용을 여타의 것들로부터 고립시킨 채 공부하는 것이 당연시된 까닭에 지식은 쪼개어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분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실제 교육 내용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상기에 열거한 과목들의 사례는 그 분류체계상 기실 최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과 영역이나 교과(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들로서, 전통적으로 각 교과를 구분지어온 칸막이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는 교육내용의 실천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을 방증한다.

셋째로, 단일한 분과 학문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학습자 혹은 사회를 고려하여 변형함으로써 종래의 교과와는 상이한 형태를 취하게 된 신설 과목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신설 과목들은 그 명칭상 기존의 특정한 교과나 내용영역의 명칭이 포함된 형태이되 사회와의 관련성 혹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나 역량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사회’, ‘현대사회와 철학’, ‘발명과 문제해결’, ‘진로와 기업가 정신’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미디어와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성의현 교사와 ‘발명과 문제해결’ 과목을 담당하는 백승리 교사는 해당 과목의 특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연구자: 아이들의 진로와 많이 가까운 그런 내용들까지 학교에서 안
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건가요?]

성의현: 제가 봐서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이 퍼지는
거예요. 넓어지는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
은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더 많이 알
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쫓힌 애들은 미디어 편
집하고 작업하는 이런 것들 전문용어들을 다 아니까. (중략)
기존에 있는 교과서나 텍스트 딱 정해진건 애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배워야 하는거지만 지금 이거[‘미디어와 사회’ 과
목]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미 [학교]밖에서 자기들끼리 알
고 있는걸 포섭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넓어져야 하거나 퍼
져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경계가 더 모호해지는거고.

백승리: 학교는 사실 공립도, 사립도 마찬가지로지만, 빨리빨리 전해지
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가 빨리 흡수가 되진 않잖아요? (중략) SNS니
뭐니 학생들은 접하는게 많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뉴턴
만 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너무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과목 운영을] 최근[의
경향]에 맞춰서 하면, 예를 들어 노벨상에서 뭘 발견했다,
그러면 애들은 그게 뭔지 검색해보고 조사해서 발표하고 하
니까 의미가 있죠.

‘미디어와 사회’ 과목은 사회 교과(군)에 기반한 신설 과목으로, ‘발명
과 문제해결’ 과목은 과학 교과(군)에 기반한 신설 과목으로 각각 미디어
와 발명이라는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단일한 기반 교과(군)을 심화하여
변형한 과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성 교사와 백 교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의 “바깥”, 즉
학문적 세계와 생활 세계를 포괄하는 학교 밖 사회였다. 이러한 사례들
은 교과가 학문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자의 흥미와 학교 밖 세
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형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세 가지 이외에 마지막으로 논할 특성은 몇몇 신설 과목들이
‘변이를 가장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지
배적인 개설 비율을 보인 ‘수학연습1·2’ 과목 및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 및 각종 ‘특강’ 과목들(물리특강1, 물리특강2, 화학특강1, 화학특강2,
지구과학특강1, 생물특강1, 생물특강2)이다. 이들은 표면상으로 과목명을
달리하였으나 실상은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교과를 반복 연습
하거나 복습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새로이 ‘생성’된 과목도 아니고 의미있
게 ‘변이된’ 과목도 아닌, ‘변이를 가장한’ 과목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에 해당하는 과목들 중에서 ‘수학연습 1·2’을 개설한 A고등학교의 김정
원 교사 및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을 개설한 E고등학교의 유진혁 교
사와의 면담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원: 수학연습1하고 수학연습2는 교재가 없죠.

연구자: 아 그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거예요? 그럼 주로 어
떤 내용으로 운영...?

김정원: 교재가 없다니까. 아예 그냥 그 시간에 미적분이라던가 일반
수학과목의 연장선상에 있는거지.

연구자: 아... 예를 들어서 수학1을 한 시간 더 한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김정원: 그렇지. 그냥 어차피 그 시간에 기백[기하와 벡터]이라든가 확률과 통계라든가, 커리큘럼은 있잖아요. 그니까 기백 시간에 기백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연습문제를 수학연습 시간에 한다 이런 개념이지.

유진혁: 3학년 때 인문통합수학은 인문계학생들, 자연통합수학은 자연계 학생들이 앞에 배웠던 과목들을 총 정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교과목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편성된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요. (중략) 예를 들면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고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이 있다 그러면 기하는 기하 내용 밖에,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 내용 밖에 없는데, [이거는] 수학1부터 기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김 교사 및 유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통해 볼 때, ‘수학연습 1·2’라는 과목명에 포함된 ‘연습’의 의미는 “기백 시간에 기백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연습문제를 수학연습 시간에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의 경우 ‘통합’이 뜻하는 바는 교과간 내지는 학문간의 통합(integration)이라기 보다는 인문계열 내에서 혹은 자연계열 내에서 “앞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총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수학연습 1·2’와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의 경우 특정 교과목의 보충학습을 위한 과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과목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실 종래의 교과목들을 반복 내지는 답습, 즉 표면적으로 변형한 형태의 과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볼 때, 결국 겉보기에 다양한 학교 신설 과목들이 개설된다 할 지라도 이러한 ‘다양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실질적인 ‘변이’의 특성을

보인 과목들이 있는가 하면 상기의 ‘수학연습 1·2’와 ‘인문·자연통합수학’ 과목처럼 ‘변이를 가장한’ 과목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Delueze와 Guattari의 사고를 다룬 이진경(2002)의 논의에 따르면 다양성은 크게 두 종류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차이가 차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다양성이고 둘째는 종류가 늘거나 무언가 추가되며 다양성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전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다양성이다. 전자는 Delueze와 Guattari의 언어로 ‘리좀적 다양성’, 후자의 경우 ‘수목형 다양성’ 내지는 ‘사이비 다양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두 관점을 학교 신설 과목의 사례에 대입해볼 때, 수학연습1·2나 인문·자연통합수학과 같이 특정 교과목의 보충 내지는 반복을 위한 과목의 경우 결국에는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하나의 특권적 지식”을 상정한 ‘수목형 다양성’ 내지는 ‘사이비 다양성’에 그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적인 측면은 이러한 과목들의 개설 비율이 매우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학교 신설 과목들이 ‘유의미한’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학교 신설 과목 역시도 현재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맥락에서 대학입시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과가 정태적이고 고정적인 속성의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의 “유기체적 현상”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각양의 생태학적 여건과 더불어 동화와 조절을 부단히 해 나가는 어떤 주체(박인기, 2011: 31)”라 볼 때, 수학연습1·2나 인문·자연통합수학과 같은 신설 과목들은 단위학교가 대학입시 체제라는 구속적인 여건 하에서 과목 신설권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교과의 변용을 시도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볼 때, 학교 신설 과목을 통한 교과의 의미있는 변이를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 입시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학교 신설 과목이 실제 단위학교 수준에서 개설된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총 242개의 학교를 표집하여 2016학년도 입학생 3개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안 및 교과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에 대한 문서 분석을 통해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고, 분석대상교 중 일부의 학교를 선정하여 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현황을 통해 볼 때,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각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 문제1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문제 1-1에 대한 결과로 학교 신설 과목의 수 측면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 학교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우선 학교유형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학교의 비율이 일반고등학교가 42.0%, 자율고등학교가 72.2%로, 자율고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자율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다수의 과목을 신설한 학교가 1개교(자율형사립고)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 신설 과목의 수를 살펴본 결과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공립학교가 40.1%, 사립학교가 51.8%로, 공립학교에서의 개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5과목 이상을 신설한 학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학교는 1.9%, 사립학교는 8.2%로 사립학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학교규모별로 개설된 학교 신설 과목의 수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학교의 경우가 학교 신설 과목을 하나도 개설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이 37.5%로 가장 낮았으며,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3과목 이상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2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학교 신설 과목의 유형을 분류체계와 과목명상의 특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서분석 대상교들은 1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교육과정에서의 교과영역 및 교과(군) 틀에 따라 학교 신설 과목들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교과(군)에 신설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총 204개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양 교과(군)의 경우에도 총 78개교가 신설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여타의 교과(군)들의 수치를 크게 웃돈다. 이어서 각 교과 영역 및 교과(군)별로 과목명을 살펴보았을 때, 1) 심화된 성격의 과목들, 예컨대 학문의 체계에 따른 세부 영역(미적분학, 통계학)이나 ‘심화’라는 이름이 과목명의 전면에 드러난 과목들(예: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 ‘심화통계학’ 등)이나 ‘○○과제연구’나 ‘○○연구방법론’과 같이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한 심화 과목들(예: 물리과제연구, 국어연구방법론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2) 과목명에 타 교과가 포함된 과목들(예: ‘경제기초수학’, ‘공업수학’ 등) 및 3) 과목명상 전통적인 교과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 과목들(‘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등) 역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개설 학교 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특정 교과의 보충 학습을 위한 성격의 과목인 수학연습1, 수학연습2,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과목이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서는 학교 신설 과목이 갖는 특성을 크게 전통적인 기반 학문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학교 신설 과목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째는 전통적인 기반 학문으로부터 탈주하여 생성되었다 볼 수 있는 과목들로서, ‘리더십’, ‘창의융합글쓰기’, ‘인문학적 상상여행’, ‘생활과 창의성’, ‘생활과 인성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보다 실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신설

과목들은 전통적인 기반 학문과의 연속성 내지는 연관성을 유지한 채 변이를 보인 과목들인데 그러한 변이의 양상은 다시금 1) 분화, 2) 결합, 3) 변형의 세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분화의 특성을 보인 신설 과목들의 경우 다시금 두 가지 양태로 나뉠 수 있었는데, 하나는 학문의 내용체계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서, 예컨대 ‘선형대수학’, ‘심화미적분학’과 같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학문의 탐구 방법이나 사고양식에 좀 더 방점을 두는 형태로서, ‘국어연구방법론’, ‘화학과정연구’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둘째로, 상이한 분과 학문들을 결합함으로써 변이를 나타낸 신설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공업수학’, ‘경영수학’, ‘역사로 보는 과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단일한 분과 학문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학습자 혹은 사회를 고려하여 변형한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미디어와 사회’, ‘발명과 문제해결’ 등이 속한다. 그런가하면, ‘변이를 가장한,’ 즉 과목명상으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그 내용에 있어 기존의 특정 교과를 반복 또는 보충하기 위한 신설 과목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수학연습1·2’ 및 ‘인문·자연 통합수학’, ‘물리특강1’과 같은 과목이 포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 신설 과목의 사례들은 그간 중등교육 맥락에서 교과와 관련하여 잔존해온 통념, 즉 교과는 곧 전통적으로 그것의 기반이 되어 온 분과 학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그 명칭과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해 학문으로부터 탈주하여 새로이 생성되는 형태로 저항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의 학문에 대한 변이를 보인 신설 과목들 중에서도 학문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이한 학문들을 결합하거나 혹은 단일한 분과 학문에 기반하되 이를 학습자와 사회를 고려하여 변형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등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문과의 관계에 있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실질적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는 전술한 교과의 통념적 의미의 변화 가능성을 일면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연습1·2’ 및 ‘인문·자연 통합수학’과 같이 특정 교과의 반복이나 보충을 위한 성격으로서 표면상으로는 변화만을 보이고 있는 과목의 개설 비율이 여타의 학교 신설 과목

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과에 대한 통념의 변화 및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과목 신설권을 통해 교과의 유의미한 생성 또는 변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의 영향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논의되어야 할 점은 학교유형이나 설립유형, 학교규모 등과 같이 학교가 속한 맥락적 요인들에 따라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다수의 신설 과목들이 특정의 자율형 사립고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단위학교의 과목 신설권이 ‘이중적 제스처(double gesture)(Popkewitz, 2008)’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Popkewitz(2008)에 따르면, ‘이중적 제스처’란 교육과정 개혁이 평등이라는 이상을 품고 추진되지만 결국 이것이 불평등과 배제를 생산해 낸다는 것을 가리키며 특히 교과의 경우를 두고 그는 “평등으로서의 불평등(p. 308)”이라 칭하였다. 즉, 단위학교의 과목 신설권 역시 소기의 목적은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교육부, 1997b: 142)”를 학교교육과정에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하는데 있었으나, 결국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이것이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른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편 특정한 학교의 학생들이 신설 과목과 관련한 학습 경험을 전유하는 결과를 빚게되기도 하는 바, 추후 단위 학교의 과목 신설권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 신설 과목을 양적, 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것의 전반적인 개설 현황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설 과목들

이 ‘교과’로서 갖는 특성 역시 세밀하게 드러내었다. 둘째로,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새로이 ‘교과’가 된 학교 신설 과목들에 관해 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과와 관련한 기존의 통념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통념들이 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 방법 측면에서 문서 분석 대상교 중 일부의 사례,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고등학교만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과목들은 문서상에서 드러나는 속성과 실제 운영상에서 드러나는 속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경우 문서 분석을 통해 개설된 과목의 수와 분류체계, 과목명과 같이 학교 신설 과목의 제한적인 측면만을 분석하였고, 교사들과의 면담에 있어서도 모든 신설 과목이 아니라 일부의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문서 분석과 면담의 대상을 일치시키거나 혹은 실제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고 풍부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서분석의 범위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교 신설 과목만을 다루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맥락에서 학교 신설 과목의 개설 양상과 특성을 온전히 다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신설 과목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2016a).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16-322호.
- _____ (2016b).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2a).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 _____ (1992b). 고등학교 교육과정(I).
- _____ (199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_____ (1997b).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 _____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_____ (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_____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편.
- _____ (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_____ (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고등학교-.
- _____ (2015c). 수학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인적자원부(2007b). 수학과 교육과정.
- 김영일·김광하·진동섭·류은낭·박지만·박주상·김해용·유지연(2008). 2007년 개정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3-1.
- 김영천·주재홍(2009).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생각해보는 교육과정 연구: 탐구주제와 연구영역들. **교육과정연구**, 27(2), 1-31.
- 김영화(2015). 대안학교 교육과정 분석과 도덕 교과 운영에의 시사점. **도덕윤리과교육**, 46, 171-199.
- 김주아·김영민·이미경(2014). 융합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숙의. **교육과정연구**, 32(4), 47-75.
-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 민용성·백경선·한혜정·곽상훈·정치훈·양지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1-3.
- 박인기(2009). 교과와 생태와 교과의 진화-교과의 개념의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어교과의 진화 조건. **국어교육학연구**, 34, 309-343.
- 변미나(2014). 고등학교 교과별 과목 구분의 유형 분석: Tyler의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총론>.
- _____ (2016). 2016 과학중점학교 운영 계획 안내.
- 소경희(2010). 학문과 학교교과의 차이: 교육과정개발에의 함의. **교육과정연구**, 28(3), 107-125.
- _____ (2017). **교육과정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심승희·김현주(2016). 기획논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 이경진·최나영(2014). 우리나라 예술계 고등학교의 보통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향 탐색. **교육과학연구**, 45(2), 99-129.
- 이동욱(2013). <동아시아사> 과목의 성격과 교재구성방향. **역사와 교육**, 7, 69-94.
- 이상은(2013a). 학교교과 '되기' 과정에 나타난 학교교과의 속성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b). 학교교과 지식의 선정과 조직 과정에 나타난 구조주의적 사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31(3), 173-199.
- 이미경·민용성·서영진·변희현·이혜원·진재관·양윤정·김택천(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4-1.
- 이진경(2002). **노마디즘 1**. 서울: 휴머니스트.

- 이혁규(2012). 교과를 넘어서는 상상력. 2012년도 한국교육과정학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자료집, 17-30.
- 인천광역시교육청(201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16-52호(2016.2.23.).
- 주재홍(2013). 학교지식에 대한 해체적 탐구. *인격교육*, 7(3), 115-138.
- 진영은·조인진(2001). *교과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과정학회(2017). *교육과정학 용어 대사전*. 서울: 학지사.
- Beckner, W. & Cornett, J. D.(1972).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content and structure*. Intext Educational Publishers.
- Bowen, G. A.(2009). Docum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9(2), 27-40.
- Burgess, R. G.(1984). It's not a proper subject: it's just Newsom. In Goodson, I. F., Ball, S. J. (Ed.), *Defining the curriculum: Histories and ethnographies*, 181-200, Routledge.
- Burns, G. T.(1988). Tradition and revolution in the American secondary curriculum: the Cambridge High School Cas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2), 99-118.
- _____(1931). *The way out of educational confu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oll, W. E.(1993). *A post-modern perspective on curriculum*. 김복영 (역)(1997).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파주: 교육과학사.
- Given, L. M.(Ed.).(2008). *The Sage encyclopedia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Goodson, I. F.(1997). Beyond the subject monolith: traditions and subcultures. *The changing curriculum: studies in social construction*, 18, 139-161.
- Goodson, I., & Dowbiggin, I.(1990). Docile bodies: Commonalities in the history of psychiatry and schooling. In Ball, S. J.(Ed.). *Foucault and education: Disciplines and knowledge*. 이우진

- (역)(2007). *푸코와 교육: 푸코를 통해 바라본 근대교육의 계보학*, 177-210. 창계.
- Hesse-Biber, S. N., & Leavy, P.(Eds.).(2010). *Handbook of emergent methods*. Guilford Press.
- Johnson, B., & Christensen, L.(2008).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Sage.
- Kliebard, H. M.(2004).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curriculum, 1893-1958*. Psychology Press.
- Krejcie, R. V., & Morgan, D. W.(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3), 607-610.
- Little, J. W.(1992). Stretching the subject: The subject organization of high schools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k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Berkeley, CA.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Pinar, W. F.(2015). *Educational experience as lived: Knowledge, history, alterity: The selected works of William F. Pinar*. Routledge.
- Popkewitz, T. S.(2009). Curriculum study, curriculum history, and curriculum theory: the reason of reas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1(3), 301-319.
- Schiro, M. S.(2013). *Curriculum theory: Conflicting visions and enduring concerns*(2nd ed.). Sage Publications.
- Seidman, I.(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박혜준 · 이승연 (역)(2014).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 Stengel, B. S.(1997). 'Academic discipline' and 'school subject': contestable curricular concept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5), 585-602.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School-developed Subjects

Hyun-ae L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ntil recently, in the context of middle school education, it has been considered that each school subject is understood as the synonym of academic discipline or is the simplified form of academic discipline, which has made the name and the contents of each course determined upon the academic course. However, in a sense that this may lead to overlook the issue of why certain contents and knowledge must be taught and this may discharacterize a course of study apart from learners and the society, this kind of notion must be overcome. In case of Korea, from the 6th national curriculum, it has been authorized to open new subjects unlis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according to academic needs or a variety of educational needs at any school including ordinary public schools. This requests school educator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each course, but each school doesn't carry out enough research on how each school utilizes this subject opening option and what kind of distinctiveness

school-developed subjects shows. As such, looking over school-developed subjects' status and distinctiveness has its meaning in letting us understand which distinctiveness of a course can be accepted as a regular course and which cannot currently at schools.

Based upon this notion, this research has its objective of analyzing school-developed courses' status at ordinary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and revealing its distinctiveness. To this, researchers sampled total 242 schools mainly including ordinary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nd carried out analysis on the documentation on 3-year school education curriculum for 2016 admissioners and the study management plan of each course and selected several schools among analysis samples and carried out interviews with teacher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subjects established is as follows;

1. How is the status of school-developed subjects?
 - 1-1. How many school-developed subjects have been opened?
 - 1-2. In which type are those school-developed subjects opened?
2. Considering school-developed subjects' status, what distinctiveness do those subjects have?

First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At first,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bject 1-1, we looked over the number of school-developed subjects by school type, opening type and school scale and by school type, the percentage of schools which don't open new course at all was 42.0% in case of ordinary high schools and 72.2%, autonomous high schools which is higher. This shows that autonomous high schools generally have lower course opening rate than ordinary high

schools. However, at the same time, in case of autonomous high schools, it was distinctive that on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was found to have opened multiple subjects. Next, as a result of looking over the number of school-developed subjects by opening type, the percentage of the schools without opening even one new course was 40.1% for public schools and 51.8% for private schools, showing higher opening rate in public schools. However, looking over the percentage of the schools that opened over 5 subjects, public schools were 1.9% and private schools 8.2% which was higher. Subsequently,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number of school-developed subjects by school scale, bigger-scaled schools has the lowest among the schools without opening any course at 37.5% and none of small schools was found out to have opened more than 3 subjects. Next,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bject 1-2, the result of extracting the type of new course with categorization system and subject name is as follows. The subject schools of documentation analysis were categorizing new subjects by the subject area and subject(group) of the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except for 1 school, and among those, the number of schools newly opening mathematics (group) was total 204, the biggest and this was followed by liberal arts(78 schools) with total 78 schools opening new subjects which greatly outnumbers other subjects(group). Followingly, looking over each subject name by each course area and course(group), 1) advanced or intensified subjects like those with the names containing academically sub-categorized areas(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statistics) or words like 'Advanced' or 'Intensive'(Examples: 'Linear algebra', 'Advanced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Advanced statistics' and etc.) or advanced subjects based upon its research method like '○○ subject research' or '○○ research

method'(Examples: Physics subject research, Korean research methodology and etc.) were found. In addition, 2) subjects with the names containing other subjects(Examples: 'Basic economic math', 'Engineering math' and etc.) 3) subjects with names which don't reveal their traditional category of study course('leadership', 'Creative fusion writing', 'Liberal arts imaginary travel' and etc.) were also found. However, the subjects with the highest number of course opening school include math practice 1, math practice 2, comprehensive math for liberal arts department, comprehensive math for natural science department, all of which are supplementary learning aids for certain subject.

As for the second result of the research, we were able to organize the distinctiveness of new subjects roughly based on the relation with the traditional source of the subject. New subjects were mainly categorized into 2 kinds of distinctiveness. First, it is the subjects that stem from the traditional source of the subject to 'be generated' and the examples include 'leadership', 'creative fusion writing', 'liberal arts imaginary travel', 'living and creativity', 'living and personality 1.2' and etc.. However, new subjects which took up higher ratio were those with continuancy with and relation to their traditional sources, showing modification which is categorized into 3 steps like 1) disintegration, 2) integration, 3) transformation. Firstly, 1) new subjects that showed the sign of disintegration were divided into 2 aspects, one is putting more focus on academic contents system and its examples include 'linear algebra', 'advanced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Another is putting more focus on the way of learning, and the examples found include 'Korean language research methodology', 'Chemical subject research' and etc.. 2) Secondly, new subjects that were integrated with different

category subjects and transformed were found and their examples include 'engineering math', 'managerial math', 'science found in our history' and etc.. 3) Thirdly, subjects which were still based on single category subjects, but transformed considering learners or the society were found and their examples include 'Media and the society', 'Invention and problem-solving'. Considering this, 4) new subjects 'faking modification', id est, which use new names that never exist, in fact, of which contents were for repeating or supplementing certain course were found, and their examples include 'Math practice 1.2' and 'Comprehensive math for both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 department', 'Special physics 1'.

Meanwhile, the cases of new subjects analyzed in this research disclose that the conception which remains in relation to a course of study in the context of middle school education, id est, each course of study should have its name and contents determined unilaterally upon its sub-category subject which has been its traditional sour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sistance in the way of 'generating itself' irrespective of the related subject. In addition, among new subjects showing transformation from existing subjects, its substantial move to diversify itself in relation to subjects at actual high schools was found, for example, staying relevant to certain subject while combining them with different subjects or basing itself on single-category subject and considering learners and the society to take transformed forms, which explains a facet of possibility of change in aforementioned course's conventional meaning. Nevertheless, the opening ratio of the subjects showing apparent changes like 'Math practice 1.2' and 'Comprehensive math for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 department' is much higher than other new subjects, and by the conceptual change in subject itself and

meaningfully using course opening option to bring out meaningful generation or transformation of the subj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ther contexts related to the subject as well as college entrance exam.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can be found in following 2 aspects. Firstly, this research mad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o school-developed subjects to disclose its comprehensive opening status as well as specifically revealing and classifying the distinctiveness of new subjects based up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traditional sources. Secondly,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can be found in part in that by debating on new subjects which newly became 'school course' at schools, we ultimately raise problems on existing conceptions and explains their possibility of change and proves it.

Meanwhile, this research has few limitations due to its research method and range and we suggest that after considering this, its subsequent research should be made. Firstly, this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its research methodology, has its limitation in that only a few cases among subject schools for documentation analysis, especially ordinary high school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s. Therefore, its subsequent research must completely match its documentation analysis subject and interviewees or carry out actual class participation observation to disclose the distinctiveness of new course more specifically and affluently.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documentation analysis, this research doesn't target all types of cross-country high schools, but it dealt with new subjects opened at ordinary high schools and autonomous high schools in capital area. Therefore, in its subsequent research, its research scope must be expanded to comprehensively disclose the distinctiveness of new

subjects.

keywords : school subject, school-developed subjects, high
schools, autonomous high schools

Student Number : 2014-20848